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00원 추월

석유공사, 7개월만에 최고치 갱신 ... 평균 판매가격 1513원 달해

휘발유 가격이 7개월만에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해 발표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4월 16-20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13.21원으로 전주에 비해 13.28원 올라 10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2006년 9월 둘째 주의 1516.39원 이후 처음이다.

서울 1586.70원을 비롯해, 대구 1503.11원, 인천 1535.87원, 광주 1503.95원, 경기 1531.74원, 충북 1476.04원, 경북 1480.99원, 경남 1500.24원으로 13.72-16.77원 올라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1526.09원, 울산 1521.35원, 충남 1481.94원 등으로 나머지 지역도 모두 상승했다.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리터당 893.20원과 904.86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 경유는 1222.26원으로 11.04원 상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3>